

울리의 하루

이연주 글·그림, 글로연, 2025



주제	질문과 생각 나누기로 작품을 깊이 있게 읽고 일상의 소중함 탐색하기
권장 차시	5시간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평범한 하루, 일상의 소중함, 소소한 행복, 평온, 애착 인형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5-01] 인물과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4국02-03] 질문을 활용하여 글을 예측하며 읽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한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울리는 1분이면 3mm, 1시간이면 18cm의 털이 자라는 양이다. 울리에게는 ‘하루’라는 이름의 애착 인형이 있다. 울리는 하루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밤이 되면 하루를 꼭 안고 잠든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보이질 않는다. 이불을 들추고 집 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하루가 없다. 하루는 어디에 있을까?

울리는 옷을 후다닥 입고 하루를 찾기 위해 덜컥거리는 버스를 타고 생쥐네 미용실로 간다. 하루는 바로 밤새 쑥쑥 자라난 울리의 곱슬 털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울리의 털을 조심스럽고 예쁘게 잘라 내면 그 틈에 숨겨져 있던 하루가 뿡! 튀어나온다. 하루를 찾아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울리는 하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또 같이 잠들고 아침을 맞는다. 매일 이어지는 똑같은 하루를 인형 ‘하루’에 맞대어 이야기하는 이 책은 특별한 일 없는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을 사랑스럽게 보여준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아주 보통의 하루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 휘몰아치는 날들을 보내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통의 하루가 주는 소중함이죠. 책 속 주인공 이름은 울리에요. 그리고 울리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의 이름은 ‘하루’랍니다. 울리가 한시도 떨어진 적 없는 ‘하루’는 인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요. 아침이 되면 울리의 털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인형 하루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하루임에도 무심하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작가는 털 속에 숨겨진 ‘하루’를 찾아 반갑게 껴안는 울리를 통해 독자에게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마주보게끔 이끕니다. 큰일 없이 잔잔하게 되풀이되는 일과 속에서 인형 ‘하루’를 찾아 떨어진 눈을 달아 주기도 하고, 함께 목욕도 하며 작지만 달콤한 행복을 깨어가는 울리의 ‘아주 보통의 하루’는 그 소중함을 잔잔하게 전해 줍니다. 간혹 밋밋한 날들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촘촘하게 들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해 소중히 여기며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가 지닌 이완과 평안이 다가옵니다.

■ 학습 목표

- 작품을 읽으며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것을 찾아 말할 수 있다.
-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여 감사일기를 쓸 수 있다.

■ 수업 준비

『울리의 하루』는 큰 걱정과 아픔 없는 평온한 삶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큰 사건을 겪고 나면 평범한 하루, 안정적인 일상이 그립고 감사하다. 매일 같은 하루지만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하루의 색깔은 달라진다. 익숙해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소소한 것들에 감사한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울리의 하루』는 어느 학년, 어느 연령이 읽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교안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염두에 두었다. 먼저 작품을 읽으며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나누며 작품을 깊이있게 이해한다. 아기자기한 그림을 세세히 살펴면 주변 인물의 이야기도 궁금하기 마련이라 다양한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활동을 넣었다. 울리의 ‘하루’처럼 나만의 애착 인형이나 물건을 소개해 보는 활동, 소소한 행복을 탐색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일련의 활동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워나가길 바란다.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표현 정도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두루 활용하길 권한다.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동기 유발 마음 열기 경험 나누기 그림책과 만나기 질문 만들기 내용 예상하기	2차시
읽는 중	그림책 읽기 면지와 속표지 읽기 내용 파악하며 읽기 궁금한 점 나누기 궁금한 점 나누기 소감 나누기	
읽은 후	이야기 상상하기	1차시
	애착 물건 소개하기	1차시
	나의 소소한 행복 탐색하기	1차시
	【대체/선택활동】 감사일기 쓰기	

읽기 전

1. 동기 유발

■ 마음 열기

-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 돌아가며 말하기로 나의 마음과 기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 경험 나누기

- 여러분은 애착 인형이 있나요?
- 인형이 아니라도 만지거나 데리고 다니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애착 물건이 있나요?

Tip. 애착 인형은 아이가 몹시 좋아하여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인형을 말한다. 포근한 촉감으로 분리 불안을 겪는 아기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수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림책과 만나기

- 표지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화장대 위에서 생쥐가 일을 하고 있어요.
녹색 앞치마를 두른 아홉 마리 생쥐가 일을 하고 있어요.
- 그림책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표지 그림은 어떤 느낌인가요?
예)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 표지를 만져 봅시다. 어떤 느낌인가요?
예) 애착인형처럼 보드라운 느낌이에요.

■ 질문 만들기

- 표지를 살펴보며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예) 우리는 누구일까?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쥐가 우리일까?
검은 눈의 핑크색 얼굴은 누구일까?

■ 내용 예상하기

- 어떤 내용인지 예상해 봅시다.
예) 우리라는 주인공이 미용실에서 있었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꼬마 쥐가 미용실에서 바쁘게 일하는 하루를 담은 그림책 같아요.
- Tip. 학생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상상할 수 있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읽는 중

1. 그림책 읽기

■ 면지와 속표지 읽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핑크색 바탕에 이름표 같은 게 두 개 보여요.
울리와 하루를 소개하고 있어요.
- 울리는 누구인가요?
예) 1초에 0.05mm씩 털이 자라는 곱슬 양이에요.
- 1초에 0.05mm씩 털이 자란다면, 한 시간에 18cm, 하루 만에 432cm의 털이 자란다는 말인데, 털이 이렇게 빨리 자란다면 어떨까요?
예) 불편할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 번 털을 깎아야 할 것 같아요.
털을 이용해서 옷이나 이불을 만들어 팔 것 같아요.
- 하루는 누구인가요?
예) 울리의 애착 인형으로 고양이 모양이에요. 울리의 배냇솜털로 만들었어요.
- 배냇솜털은 아기에게서 나는 털의 일종으로 어른의 솜털보다 더 가늘고 부드럽답니다.
- 속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울리가 하루를 안고 자고 있어요.

■ 내용 파악하며 읽기

-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 아침, 잠에서 깬 울리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예) 울리의 애착 인형인 하루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 집 안 곳곳을 찾아도 하루가 보이지 않네요. 하루는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예) 침대 아래에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밤새 울리의 털이 자라는 바람에 울리의 털 안에 갇혔을 것 같아요..
- 울리는 하루를 찾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예) 버스를 타고 생쥐네 미용실에 가요.
- 생쥐네 미용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생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장면에서 보이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거울에 비친 울리의 모습이 보여요.
생쥐들이 울리의 털 사이사이를 살펴보고 있어요. 털 사이에 갇힌 하루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쥐들이 울리의 털을 빗기고 빗질하고 말리고 있어요.
울리에게 어떤 머리모양을 하고 싶은지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 깎인 울리의 털 뭉치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예) 울리의 애착 인형인 하루요.
- 생쥐들은 울리의 털로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예) 털을 뭉쳐서 털모자, 털양말, 옷을 만들고 있어요.

- 하루를 찾은 울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 신나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 미용실 밖에 동물들이 줄을 서 있네요. 분홍색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예) 울리의 털로 만든 옷과 소품들이 들어 있어요.

-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울리는 먼저 무엇을 하나요?

예) 하루를 손질하고 있어요. 떨어진 눈을 꾹매고 있어요.

- 울리와 하루는 남은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예) 책을 읽고 피아노를 쳐요. 목욕을 하고 함께 잠을 자요.

- 울리와 하루의 모습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예) 편안해 보여요.

- 밤사이 울리와 하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 울리의 털은 또 많이 자라고, 하루의 눈 한 쪽은 또 풀려 버렸어요.

- 다음 날 아침,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예) 아침에 일어난 울리가 사라진 하루를 찾아 또 미용실에 갈 것 같아요.

- 마지막 장면에서 가려진 두 낱말을 예상해 봅시다.

오늘도 () () 가요.

예) 하루를 찾으러

- 작가는 왜 울리의 애착인형 이름을 하루로 지었을까요?

예) 애착 인형처럼 하루라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애착 인형을 대하듯 소중하게 쓰라고요.

2. 궁금한 점 나누기

■ 궁금한 점 나누기

-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예)

왜 버스를 식빵 모양으로 그렸을까?

작가는 왜 많은 동물 중 미용사로 생쥐를 선택했을까?

주인공 양의 이름은 왜 '울리'일까?

울리는 매일 다른 모양으로 털을 깎을까?

울리는 피아노로 어떤 곡을 연주할까?

울리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낼까? 반복되는 일상이 행복할까?

그림에 왜 분홍색을 많이 썼을까? 작가가 분홍색을 좋아해서 일까?

버스 정류장과 버스에서 만난 동물들은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걸까?

맨 마지막에 생쥐가 “정말 멋진 하루였어.”라고 말을 했는데, 왜 멋진 하루라고 말했을까?

- 내가 만든 질문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 질문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생성한 질문	생각 나누기
양의 이름은 왜 울리일까?	· 양의 털인 양모, wool을 넣어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나에게 ‘멋진 하루’란?	· 특별하진 않지만 걱정이 없고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 · 기다리고 기대했던 어떤 일이 벌어진 하루 ·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즐겁게 놀았던 하루

Tip. 학생들이 만든 질문으로 짝, 모둠, 반 전체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 소감 나누기

- 작품을 읽고 난 뒤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집에 있는 제 애착 인형이 떠올랐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밤에 안고 자는 곰인형이 있어요.

이 책은 특별하지 않지만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울리의 하루’라는 제목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목을 보고 울리라는 주인공의 하루를 보여주는 그림책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애착 인형의 이름이었어요. 울리가 ‘하루’와 보내는 하루를 보여주니까 제목이 ‘울리의 하루’가 된 게 재미있고 의미있어요.

읽은 후

1. 이야기 상상하기 【활동지1】활용

■ 인물 선택하기

- 울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동물은 누구인가요?

예) 기린, 토끼, 곰, 닭, 뱀 등

- 다른 등장인물들은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예) 기린: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갈 것 같아요.

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요.’

토끼: 아기 토끼에게 필요한 우유, 치약, 딸기를 사러 시장에 가요.

- 등장인물의 모습과 한 말을 토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봅시다.



예)

등장인물	특징과 한 말	등장인물의 이야기
기린	·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들고 있다. · “병원을 옮겨야겠어.”	· 기린 여사는 목이 길고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다녀요. 그런데 버스가 너무 낮고 흔들려서 목이 더 아파요. 그래서 걸어다닐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요.
토끼	·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다. · “우유, 치약, 딸기”	· 토끼는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메모해요. 오늘은 집에 있는 아기 토끼를 위해 마트에서 사야하는 우유, 치약, 딸기를 적고 있어요.
곰	· 꽃과 식물을 들고 있다. · “오늘은 꼭 고백할 거야!”	· 곰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꽃을 준비하고 오늘은 꼭 고백할 거라고 다짐을 해요.
생쥐	·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 · “정말 멋진 하루였어.”	· 생쥐는 울리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일해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분홍색 봉지에는 울리의 털로 만든 옷과 소품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 짝 또는 모둠 친구들과 내가 상상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아 봅시다.

2. 애착 물건 소개하기 【활동지2】활용

■ 나의 애착 물건 소개하기

-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매우 좋아하고 늘 함께한 물건이 있나요?
- 나의 애착 인형이나 애착 물건을 글과 그림으로 소개해 봅시다.

Tip. 학급 상황에 따라 실물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찍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3. 나의 소소한 행복 탐색하기 【활동지3】활용

■ 나를 평온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 떠올리기

- 나는 편안하고 행복할 때 어떤 표정을 짓나요?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을 그려봅시다.
- 나를 평온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써 봅시다.

예)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 강아지 해피가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달려올 때 행복해요.

【선택/대체활동】

4. 하루 세 줄 감사일기 쓰기 【활동지4】활용

■ 하루 세 줄 감사일기 쓰기

- 감사한 존재와 감사한 일을 찾아 감사일기를 세 줄 써 봅시다.

예)

날짜 (요일)	하루 세 줄, 감사일기 쓰기
12월 23일 (월)	 나를 따뜻하게 해 주는 패딩을 입어서 감사하다.  등굣길에 친구를 만나 웃으며 등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급식 메뉴가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와 마라탕이라 감사하다.

Tip. 감사일기 쓰기는 일회성 활동이 아닌 습관이자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다. 감사일기 쓰기의 좋은 점과 효과 및 방법을 검색하여 활용해 보자.



읽은 후 활동 이야기 상상하기

이름 :

▣ 버스에서 만난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써 봅시다.

등장인물	특징	등장인물의 이야기
		
		
		
		

【활동지2】



읽은 후 활동

나의 애착 물건 소개하기

이름 :

▣ 나의 애착 인형이나 애착 물건을 소개해 봅시다.



A large, light pink rectangular area with a pointed top, serving as a space for writing. At the bottom, there is a white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pink border, intended for a drawing or additional notes.



읽은 후 활동

나의 소중한 행복 탐색하기

이름 :

▣ 나는 편안하고 행복할 때 어떤 표정을 짓나요?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을 그려 봅시다.



▣ 나를 평온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써 봅시다.

예)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집 강아지
해피가 꼬리를 흔들며 내게
안길 때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

